연예뉴스 스테이션

이민호·수지 나란히 "결별설 사실 무근"
한류스타 커플인 연기자 이민호(28)와 그룹 미쓰에이 수지(21) 측이 결별설을 부인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와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나란히 "결별설은 사실무근이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최근 두 사람이 바쁜 일정 탓에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인관계를 정리했다며 결별설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3월 영국 런던에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연인 사이를 인정했다.

열애설 유연석·김지원 "친한 선후배사이"
한솥밥을 먹는 연기자 유연석(31)과 김지원(23)이 열애설에 휘말렸다. 두 사람이 2년 째 교제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두 사람의 소속사인 킹콩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둘에게 확인한 결과,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밝혔다. 열애설이 여러 차례 제기됐던 두 사람은 2012년 영화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 처음 만났고, 지난해 12월 김지원이 킹콩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한 식구가 됐다.

김기영 감독의 '하녀' 이은심, 부산영화제 방문
김기영 감독의 1960년 영화 '하녀'의 주인공 이은심이 33년 만에 관객 앞에 선다. 이은심은 10월1일 개막하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으로 방문한다. 1970년대 후반 은퇴한 뒤 1982년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던 이은심은 '하녀'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마련한 '아시아영화 100'에 선정됨과 동시에 남편인 고 이성구 감독이 연출한 '장군의 수염'이 '한국영화 회고전'에 초청되면서 33년 만에 관객을 만나게 됐다.

SM, 엑소 무단이탈 독자행동 타오 상대 소송
SM엔터테인먼트(SM)가 엑소를 무단이탈해 중국에서 독자활동에 나선 타오와 타오의 앨범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22일 "당사는 엑소 멤버인 타오의 적법한 매니지먼트회사로서 타오와 타오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도모하는 앨범 제작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2015년 9월18일 베이징 법원에 정식 입안 됐다"고 밝혔다. 앞서 SM은 루한과 크리스에 대해서도 2월과 7월 각각 중국 내 불법적 연예활동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음악 랭킹

9월 14일~9월 20일, 자료: 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취향저격	iKON
2	레옹	이유 갓지 않은 이유
3	그렇게 됐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4	겁 (Feat. 태양)	송민호
5	맙소사	황태지
6	Dumb Dumb	레드벨벳
7	Lion Heart	소녀시대
8	스폰서 ($ponsor)	으뜨거따시
9	오늘부터 우리는	여자친구
10	오빠차	인크레더블, 타블로, 지누션

송강호, 14년만에 부산국제영화제 사회 맡은 이유

고군분투 부산영화제 힘이 되고 싶을 뿐…



14년 만에 영화제 개막식을 진행하게 된 송강호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뉴스 인사이드

함께 사회 볼 아프칸 여배우 응원의 뜻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개막식 진행할것"

배우 송강호가 14년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는다. 영화 출연 외에는 고집스러울 만큼 다른 활동을 자제해온 그이기에 4000석 규모의 대극장 무대에 오르기로 한 선택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송강호는 10월1일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진행한다. 6회째이던 2001년 개막식 사회를 맡고 햇수로 14년 만이다.

사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영화제 측으로부터 개막식 진행을 부탁받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해왔다. 영화 촬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았고, 한편으로는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생기지도 않았는데…"라는 생각과 어색함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런 송강호가 올해는 왜 영화제의 제안에 응했을까.

먼저 '의리'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한 외압을 받았다는 논란을 모았다. 논란은 올해까지 이어졌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올해 영화제 지원금마저 대폭 삭감됐다. 이에 영화계는 물론 사회 각 부문의 비판이 일었다. 송강호는 "알려졌다시피 어려움을 겪은 영화제가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했다. 유독 올해는 '못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동안 영화제를 꾸려온 구성원들의 열정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입장에서 그들의 진심을 지나치기도 어려웠다. 송강호는 8월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자신을 찾아온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마주했다. 이 위원장은 집무실이 있는 부산으로 출발하기 직전 송강호에게 개막식 진행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기 위해 출장가방을 든 채 한달음에 극장으로 달려온 터였다. 송강호는 "이 위원장이 마음 편히 부산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었다"고 했다.

개막식의 공동 진행자가 아프가니스탄의 여배우 마리나 골바하리란 사실은 송강호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영화와 연기의 꿈을 키워가는 20대 여배우를 응원하고 싶다는 뜻이 강했다. 그는 "화려하지 않은, 전쟁에서 핀 꽃 같은 느낌의 배우"라며 "우리가 그녀의 열정에 주목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마침 올해는 송강호가 연기를 시작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20회째를 맞는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송강호와 영화제가 함께 맞는 '20주년'이 갖는 상징성은 쉽게 지나치기 어렵다. 송강호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웃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윤은혜, 부산영화제 일정 취소…표절 논란 칩거모드?

의상 디자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윤은혜(31)는 침잠하는 것일까.

10월1일 개막하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단편영화 감독 자격으로 초청받아 관객과의 대화(GV)를 예정했던 윤은혜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윤은혜는 당초 연출작 '레드아이'가 부산국제영화제 와일드 앵글 섹션의 단편 쇼케이스에 초청돼 부산을 찾으려 했다. 소속사 제이아미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영화가 출품돼 당초 GV를 계획했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행사 진행이)무리라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은혜는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에서 영화 제작을 전공하며 연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왔다. 그 첫 번째 결과물로 2012년 '뜨개질'을 연출해 그해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섹션의 한국단편 경쟁부문에 초청돼 감독으로 영화제를 찾았다. 당시 그는 GV에서 "배우로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도전의식을 드러내며 연출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출작 '레드아이'로는 부산에서 관객과 만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표절 사태에 대해 자신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비난에 스스로를 가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연출에 대한 열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윤은혜는 표절 논란을 일으킨 관련 프로그램인 중국 동방위성TV의 디자인 서바이벌 '여신의 패션 시즌2' 녹화를 마치고 18일 귀국한 뒤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현재까지 잡힌 일정이 없다. 예정된 중국 TV프로그램 녹화도 모두 마쳐 당분간 한국에 머무를 것 같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또 음원 사재기?

멜론 회원 수백개 유사ID 발견 목록엔 모두 A가수 곡만 즐비 음악소비 조작 순위 왜곡 우려

음악사이트에서 '작전'이 의심되는 수상한 ID가 대거 발견돼 가요계 음원 사재기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사재기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증거를 쉽게 찾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우려된다는 시선도 있다.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 멜론에서 A가수와 '팬맺기'를 한 회원 ID 명부를 살펴보면 일련번호가 붙은 동일 패턴의 유사 ID가 수백개 발견된다. 'abc01', 'abc02', 'abc03' 등 영어와 숫자가 조합된 오름차순 형식이다. 이들이 최근 들었던 곡과 '좋아요' 목록은 모두 A가수의 특정곡이다. 해당곡과 가수의 랭킹을 올리려는, 사재기의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또 다시 의혹 제기에만 그칠 우려도 크다. 2013년 SM·YG·JYP·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을 제안한 업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불가능했다.

실제로 A가수뿐 아니라 웬만큼 팬덤을 가진 아이돌 가수들은 누구나 동일패턴 ID의 회원이 수십~수백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실명확인만 거치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ID를 만들 수 있어 가족·친지의 이름으로 ID를 얻어 반복적으로 노래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팬심을 무작정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전문브로커이든, 수십만의 팬심이든, 동일패턴 ID로 인해 음악소비가 건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결국 순위가 왜곡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악사이트 측의 더 치열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멜론 측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는 ID와 곡에 대해서는 정교한 필터링 기능을 가동시켜 차트에 반영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ga.com

살을 빼는 것 보다 찌는 것이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살 안쪄 걱정되는 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조금 찌고 배도 약간 나오는 것이 웬지 안정감있고 품위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마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만하여 성적이 쳐지고 특히 편식으로 인한 영양이 고르지 못하거나 성장이 빈약하다고 호소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고른 영양섭취와 함께 '살찌오'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찌오'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성분과 꼭 필요한 성분들로 흡수가 잘 되어 빠르게 작용한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허약하고 매사 쉽게 지치는 등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들과 이유없이 마르는 사람들은 '살찌오'를 꼭 한번 드실 것을 권한다.



▶ 유전적 특이성이 전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잘 먹어도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의 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의 가계를 살펴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체중에 속하는지 마른 체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가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형이라면 자녀에 속하는 사람 또한 유전적인 특이성에 의해 마른 체형일 수 있으나 유전적인 특이성은 후천적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가장 큰 내부요인
신경이 예민해서 살이 안찐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텐데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공급이 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잘못된 식습관이 마르게 한다
나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양소만 과도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게되어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채식 위주의 저칼로리 식사만 하는 경우라면 체중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육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어릴 때 아마 편식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든 영양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건강한 체중 유지의 지름길이다.

특허 제10-1314762호 www.sunsea.kr
허약하거나 체격이 빈약하면 밖에서 자신이 없는 법!
당당한 체격이 부러우십니까?
흡수가 빠른 체중증가에 「살찌오」
체중늘고 힘도 솟아!

salzzio
구입문의: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통신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에스넷 E-mail: kakaose4@naver.com
부산지사: 051-902-9800/ 1600-3851(전국)
찾아오시는 길: 부산종합버스터미널(주) 1층

PHILIPS 고성능 원음녹음기 DVT-4000
최상의 正品 필립스 (Philips) 원음 휴대용녹음기
세계적인 필립스의 음질과 기능을 경험하십시오!



사일런트(Silente 비밀녹음 기능)/버튼 작동없이 핸즈프리 녹음가능
회의,강의,설교,설법,증거녹취/ 중요모든 작동기능 전체 한글지원
한번 충전으로 50시간 연속녹음

명품 필립스 고성능녹음기는 다양한기능과 모든 작동기능 한글지원과 음성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최고의 음질을 지원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보증하며 A/S 또한 세계 어느곳에서나 필립스에서 기능한 정품 제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필립스코리아에서 보증합니다.

PHILIPS
VOICE TRACER
DVT4000 ★고급형★
MSIP-REM-ZVR-DVT4000

- 우수한 사운드 품질을 위해 스테레오 MP3녹음
- 사일런트녹음(비밀녹음)
- 파일 재생 시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재생을 위한 음성강조기능
- 자동 녹음 감도 조정을 위한 동작 센서
- 버튼을 누르지 않고 녹음을 시작하는 VA녹음 모드 (핸즈프리 기능)
- 단어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미리녹음 기능
- 장시간 녹음을 위해 USB 포트를 통한 전원공급
- 녹음 시 명확한 상태정보 표시를 위한 대형 컬러화면 표시장치
- 추가 저장을 위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확장 32G
- 녹음파일의 중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Index표시 기능
- 신속하게 모든 음성녹음을 찾을 수 있는 날짜 검색
- 내구성이 좋은 금속재질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DVT-4000
Size: 45x120x18mm/Color: Silver
Weight: 83g

PCM에 32G까지 지원



★2스테레오 고감도 마이크



오늘 국내출시 할인행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입문의: 1644-2464 입금계좌: 농협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통신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에스넷 E-mail: kakaose4@naver.com
무료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 A/S안내: 물품구입후 6개월이내 제품자체 불량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제품교환(상태점검후)
www.sunsea.kr
부산지사: 051-902-9800/ 1600-3851(전국) 찾아오시는 길: 부산종합버스터미널(주) 1층